

노동정책연구
2007. 제7권 제4호 pp.59~85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이승렬**
최강식***

본 연구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이며, 자영업 종사로부터 얻는 상대적 만족도와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이 양국간에 다른지 살펴보았다.

자영업의 소득 발생 여부(흑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종사 기간,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득(혹은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학력 등의 인적자본 변수가 이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육(학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 가운데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superstar)들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 분위회귀분석, 한일 비교, 자영업

논문접수일: 2007년 11월 21일, 심사의뢰일: 11월 22일, 심사완료일: 12월 25일

* 본 연구는 아시아 연구기금(2004년)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eesy@kli.re.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kangchoi@yonsei.ac.kr)

I. 서론

지역과 문화에서 근접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성과 함께 상이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든다면, 자영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민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은 2006년 현재 28.0%를 차지하나 일본은 11.0%이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자영업이 노동시장 불균형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 일본은 자영업이 실업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율이 더욱 크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기 불황에서 고실업률을 경험하면서도 낮은 창업률을 보이는 일본과 대비된다.

양국에 자영업의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이나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자영업 결정 요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자영업을 통하여 얻게 될 생애소득 흐름(lifetime income stream)의 현재가치(present value)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경제 주체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완전성(imperfection)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자영업 창업을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위험(risk)을 감수하는 성향이 자영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가족 배경이 자영업 결정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요인이 자영업 창업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양국에서 자영업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요인이 지니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양국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각국의 특수한 사정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자영업을 결정

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여 보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근 자영업 동향을 살펴본 뒤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에 나타나는 자영업 부문의 차이점이 어떠한가를 파악한다. 특히 자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자영업 종사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져다주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영업의 선택과 소득 결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국 자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자영업에 관한 연구는 자영업 선택결정 요인 분석,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및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먼저 자영업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생애소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의 불완정성(Evans and Jovanovic, 1989; Holtz-Eakin, Jufaian, Rosen, 1994;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자율성 확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의 비금전적 보상(Hamilton, 2000; Lombard, 2001),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조세제도(Blau, 1987), 위험에 대한 개인 성향(Van Praag and Cramer, 2001), 가족 배경(Fairlie, 1999) 등이 자영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Hamilton(2000)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는 행위를 자영업자가 누리는 일의 자율성 등 비금전 보상이라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 2000)은 자영업자의 특징과 자영업자 비율 추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등은 자영업의 선택, 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성지미·안주엽(2002)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 기간, 이전 직장의 경험,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 지속 기간, 자영업 형태, 창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등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우영·김응규(2001)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약간 더 만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성,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가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가 자영업주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자영업 연구가 활발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자영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는 낮은 자영업 비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八幡成美(1998)는 최근 20년간 자영업자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전문기술 관련 직업의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小木榮一(2001)와 竹内英二(2001)는 일본 국민생활금융공고(國民生活金融公庫)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신규개업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주요한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Genda and Kambayashi(2002)는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상대소득 감소가 자영업 창업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Harada(2003)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의 성공(이윤 발생, 창업 이전 예상매출액 이상의 매출액, 창업 이전 소득 이상의 소득)은 창업자의 이전 경력과 초기 창업 규모와 정(+)의 상관성을 보이거나 중고령자와 여성은 불리함을 실증분석하였다.

Ⅲ. 한·일 자영업 추이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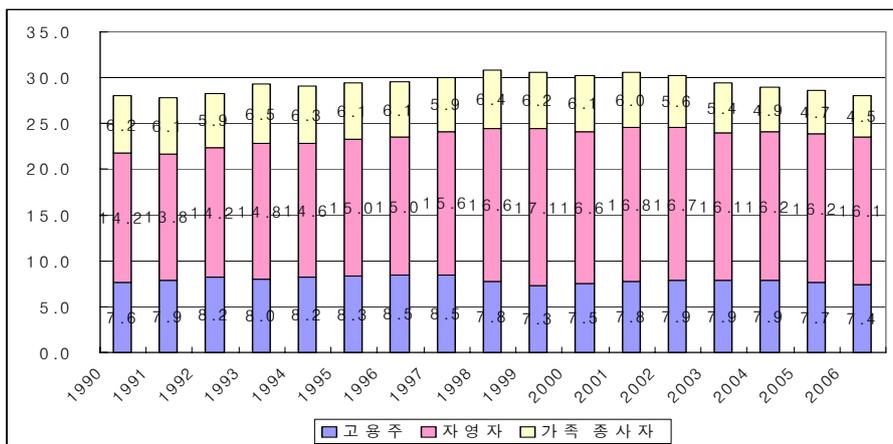
1.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변화

가. 한국 자영업의 추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이 최근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부문 종사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얻어 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부터 서서히 자영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중은 외환부족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컸던 1998년에 30.8%까지 상승한다. 1999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하여 2006년에는 자영업 비중이 28.0%로 1990년의 27.9%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990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본다면,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자영자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자영업 비중 추이(1990~2006년, 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표 1〉 종사상지위별 고용 증감 추이(1999~2006년, 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만명)

	취업자 전 체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상용	임시	일용		
1999	448	109	-39	153	-5	339	-402	209	533
2000	924	220	106	74	39	704	262	354	88
2001	511	197	89	110	-1	314	321	118	-125
2002	676	142	65	100	-23	533	150	166	216
2003	89	-122	22	-99	-45	212	405	118	-311
2004	543	61	38	97	-73	482	355	77	50
2005	324	12	-15	63	-35	312	296	-22	38
2006	325	-39	-36	24	-28	364	286	86	-8

주 : 농림수산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그리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농림업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수를 얻어 보면,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2003년에 122만명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 뒤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나 이 추세는 상당히 약하며, 게다가 2006년에 다시 39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속적이 감소와 더불어 고용주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자영업 종사자 전체가 보이는 추세와 달리 종사자 내의 구성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본 것이 <표 2>이다. 표에서 성별·연령별 특성을 종합하여 본다면,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양성 모두 1990년대 초·중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 감소 추세는 여성 30대와 남성 30대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남성 40대의 감소가 관찰된다. 여성 50세 이상은 2005년과 2006년 증가 추세가 상당히 줄어들며, 남성 60세 이상도 유사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과는 달리 남성 50~59세는 1998년 이후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2003년 이후에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표 2〉 연령별 남성 비임금근로 취업자수 추이(1995~2006년)

(단위: 천명)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1995	11	15	64	8	15	113	251
1996	-16	30	72	11	9	106	137
1997	10	0	52	36	23	121	43
1998	-10	-86	-10	-12	-2	-120	-586
1999	-11	-16	45	18	17	53	75
2000	-14	19	88	41	14	148	336
2001	-8	10	75	28	37	141	91
2002	-4	-23	78	47	30	129	281
2003	-19	-22	65	23	-13	34	112
2004	-34	-66	-1	66	43	7	222
2005	-24	-57	-21	64	33	-6	149
2006	-27	-64	-39	53	26	-51	1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표 3〉 연령별 여성 비임금근로 취업자수 추이(1995~2006년)

(단위: 천명)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1995	30	20	52	13	9	124	166
1996	-1	26	50	10	6	91	185
1997	4	-5	53	1	22	74	160
1998	-27	-93	-9	-25	-5	-158	-524
1999	-23	-25	44	31	28	55	265
2000	-6	-6	60	5	19	73	368
2001	-25	-7	33	28	26	55	223
2002	-21	-20	12	35	8	14	252
2003	-6	-78	-18	-31	-23	-156	100
2004	-22	-11	11	42	34	53	260
2005	-6	-58	2	64	16	19	163
2006	-5	-19	-10	33	14	12	1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나. 일본 자영업의 추세와 특징

헤이세이(平成) 불경기로 불리는 1990년대의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2002년에 평균 5.4%(계절조정치)에 이르러 전후 최대를 기록할 만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 최근 2007년 9월 현재 4.0%(계절조정치)로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¹⁾

이처럼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타개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 자영업이다. 자영업은 일종의 소기업(小企業)으로서 이들이 성장·확대함으로써 고용기회의 창출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佐藤博樹, 1999).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의 자영업 부문이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지난 약 30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신사업창출촉진법」을 개정, 2003년 2월부터 자본금이 1엔 이상인 경우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²⁾

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감소는 2003년 이후에도 여전하며, 2006년에는 무급가족종사자수가 24만 명 줄어들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11.0%로 자영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와 <표 4>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 부문 추이를 비교하여 본다면, 한국의 자영업자는 2003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종사자수에서 계속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일본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무급가족종사자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일본보다 감소 정도 컸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³⁾

이처럼 1990년 후반에 원인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실업률 급증이라는 노동시장의 큰 충격을 경험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자영업 부문에서 보이는 특성은

-
- 1) 참고로 2007년 7월에는 실업률이 3.5%까지 하락하였다.
 - 2) 다만 이 제도를 통하여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1,000만 엔, 유한회사의 경우는 300만 엔으로 자본금을 늘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일본의 경우에 성별·연령별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를 얻을 수 없어 자영업 부문 내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표 4〉 일본 취업자 추이(1996~2006년)

(단위: 만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감				자영업 비중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1996	6,155	604	248	5,287	39	-11	-12	58	13.84
1997	6,232	610	247	5,358	77	6	-1	71	13.75
1998	6,197	605	240	5,334	-35	-5	-7	-24	13.64
1999	6,155	602	234	5,298	-42	-3	-6	-36	13.58
2000	6,150	585	224	5,322	-5	-17	-10	24	13.15
2001	6,126	554	215	5,331	-24	-31	-9	9	12.55
2002	6,063	541	205	5,292	-63	-13	-10	-39	12.30
2003	6,050	535	195	5,296	-13	-6	-10	4	12.07
2004	6,064	529	189	5,319	14	-6	-6	23	11.84
2005	6,097	525	184	5,356	33	-4	-5	37	11.63
2006	6,132	512	160	5,430	35	-13	-24	74	10.96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뜻한다.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해당 연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특성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자영업 부문에서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어떠한 원인이나 배경이 있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자영업자의 만족도 비교

대체로 서구의 경험에 따르면, 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취향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자신이 일의 강도와 업무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lanchflower, 2004). 여기에서는 양국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일자리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가. 한국 자영업의 만족도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및 개인 정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4차년도(2001)~8차년도(2005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4차년도 이전의 자료에는 창업인지 가업 계승인지를 묻는 자료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였다. <표 5>는 개인발전 가능성의 만족도를 제외하면,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업만족도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에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보수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약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취업안정성과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자신이 주인(my own boss)이라는 점에서 얻는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 중에서 본인이 창업하였거나 기타의 경우와 가업을 계승한 경우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임금/보수, 취업안정성,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는 본인 창업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개인발

〈표 5〉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만족도 비교(2001, 2005년)

	연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 체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임금/보수	2001	3.34(0.78)	3.60(0.86)	3.60(0.86)	3.52(0.86)
	2005	3.23(0.77)	3.53(0.89)	3.55(0.90)	3.41(0.79)
취업안정성	2001	2.98(0.79)	3.07(0.80)	3.07(0.80)	3.05(0.73)
	2005	2.81(0.79)	2.98(0.83)	2.99(0.85)	2.94(0.67)
하고 있는 일의 내용	2001	2.80(0.73)	2.80(0.72)	2.79(0.73)	2.87(0.66)
	2005	2.66(0.69)	2.72(0.74)	2.73(0.75)	2.64(0.64)
근무환경	2001	2.95(0.72)	2.99(0.68)	2.99(0.68)	2.97(0.51)
	2005	2.81(0.74)	2.87(0.74)	2.88(0.75)	2.82(0.69)
개인발전가능성	2001	3.08(0.75)	3.00(0.71)	3.00(0.71)	3.14(0.64)
	2005	2.98(0.76)	2.93(0.79)	2.95(0.80)	2.80(0.76)

주: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뜻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원자료.

전 가능성의 경우에는 2001년 조사에서는 가업 계승자가 매우 미세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인 창업 및 기타의 경우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본 자영업의 만족도

일본의 경우는 「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고, 2002)의 원자료를 토대로 하여 만족도를 알아보기로 한다.⁴⁾ 이때 경영형태를 두 범주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영업자를 자기고용자(아래에서는 자영자라 하기로 함)와 기업경영자로 구분하고, 아울러 가업을 승계한 후계자와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한 창업자로 구분하였다. 기업경영자는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이어서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6>을 보면, 일본의 자영업자는 근무자(임금근로자)가 자신보다 높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업을 계승한 경우가 창업을 한 경우보다 크다. 이와는 달리 여가와 여유라는 점에서는 근무자보다 자신이 더욱 만족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무자보다 높은 만족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직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만일 무응답을 제외한다면, 자영업자의 약 7할이 근무자와 비교할 때, 자신이 일에 더욱 만족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창업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가 느끼는 만족도 결과를 보면, 보수(報酬)라는 점에서는 양국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신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인식이 양국의 자영업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는 낮은 보수를 감수하면

4) 이 분석과 관련하여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일본사회연구정보센터 SSJ 데이터아카이브에서 「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고, 2002)의 원자료를 제공받았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 조사는 일본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모든 지점이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자를 제공한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기업경영자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먼저 종업원수가 3인 이하로 본인과 가족 이외에 상근 종사자가 없는 개인 기업 사업주로서 이를 자기고용자라 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일 때는 기업경영자라 하고 있다. 최종 집계된 조사 표본은 자기고용자가 2,380건이며, 기업경영자는 1,426건이다.

서 여가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영하는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일본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2001년)

(단위: 인, %)

		창 업	가업 계승	전 체
전 체		2,039(100.00)	341(100.00)	2,380(100.00)
수입	근무자	782(38.35)	151(44.28)	933(39.20)
	어느 쪽도 아님	851(41.74)	130(38.12)	981(41.22)
	자신	360(17.66)	48(14.08)	408(17.14)
	무응답	46(2.26)	12(3.52)	58(2.44)
여가/여유	근무자	580(28.45)	103(30.21)	683(28.70)
	어느 쪽도 아님	605(29.67)	108(31.67)	713(29.96)
	자신	802(39.33)	115(33.72)	917(38.53)
	무응답	52(2.55)	15(4.40)	67(2.82)
일	근무자	42(2.06)	17(4.99)	59(2.48)
	어느 쪽도 아님	504(24.72)	134(39.30)	638(26.81)
	자신	1,441(70.67)	174(51.03)	1,615(67.86)
	무응답	52(2.55)	16(4.69)	68(2.86)

자료: 일본생활국민금융공고(2002).

〈표 7〉 일본 자영업자의 생활 전반 만족도(2001년)

(단위: 인, %)

	창 업	가업 계승	전 체
상당히 만족	72(3.53)	11(3.23)	83(3.49)
다소 만족	668(32.76)	109(31.96)	777(32.65)
어느 쪽도 아님	593(29.08)	101(29.62)	694(29.16)
다소 불만	489(23.98)	82(24.05)	571(23.99)
상당히 불만	175(8.58)	32(9.38)	207(8.70)
무응답	42(2.06)	6(1.76)	48(2.02)
전 체	2,039(100.00)	341(100.00)	2,380(100.00)

자료 : 일본생활국민금융공고(2002).

IV.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1. 자영업자의 소득(순이익) 분포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

KLIPS 자료에는 자영업자의 적자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으며, 적자가 아닌 경우에 자영업자의 소득(순이윤과 자기노동에 대한 보상의 합이라고 파악됨)을 묻는 문항이 있다.⁵⁾ <표 8>에는 먼저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6,046명의 응답자 중에서 적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7.1%였다. 이 중에서 종업원이 없이 자기 혼자 경영을 하는 경우는 적자 비율이 종업원을 두고 기업형태로 경영을 하는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경영이 소규모 경영이면서 위험회피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창업 및 기타의 경우가 가계를 계승한 경우보다 적자 비율이 더 적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다음으로 적자가 아닌 경우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 9>에서 살펴보았다. 자영자이면서 창업 및 기타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164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자영자이면서 가업 계승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155만

<표 8> 한국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 적자 발생 여부

(단위: 인, %)

	자영자		기업경영자		전 체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혹 자	3,222(93.7)	399(89.0)	1,813(93.7)	181(80.8)	5,615(92.9)
적 자	217(6.3)	49(11.0)	122(6.3)	43(19.2)	431(7.1)
전 체	3,439(100.0)	448(100.0)	1,935(100.0)	224(100.0)	6,046(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PS 4차~8차 원자료.

5) 8차년도부터는 적자인 경우에도 적자액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표 9〉 한국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 소득 크기

(단위: 만원)

	자영자		기업경영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관찰치	3,222	399	1,813	181
평균	164.06	154.69	310.09	234.55
표준편차	253.05	193.14	435.04	218.32
최소값	0	0	0	0
최대값	6,724.30	2,601.63	13,550.14	1,806.68
10%	46.77	38.42	93.55	90.33
25%	90.33	72.27	153.57	108.40
50%	135.50	108.40	233.86	180.67
75%	187.09	180.67	361.34	271.00
90%	271.00	271.00	542.01	451.6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PS 4차~8차 원자료.

원 정도로 나타나, 창업 및 기타인 경우가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의 경우는 자영자의 경우보다 소득이 훨씬 높았다. 기업경영이면서 창업 및 기타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310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기업경영이면서 가업 계승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235만 원 정도로 나타나, 창업 및 기타인 경우가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 역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분포

이 경우에도 「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고, 2002)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아쉽게도 자영업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으며, 대신 월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⁶⁾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 순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조사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6) 순이익의 정의는 총이익에서 인건비, 가임(家賃), 지급이자 등의 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의 비임금근로자 순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되 자영업자 순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지를 파악하고 있다.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영자보다 기업경영자가 그리고 가업 계승자보다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와는 다른 특징이다.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순이익 규모를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자보다는 기업경영자가, 창업자보다는 가업 계승자가 순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업 계승자의 순이익이 창업자에 비하여 큰 것은 순이익 발생 여부의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경영형태별 순이익 발생 여부

(단위: 인, %)

	자영자		기업경영자		전 체
	창 업	가업 계승	창 업	가업 계승	
흑 자	829(40.66)	133(39.00)	617(67.80)	312(60.47)	1,891(49.68)
적 자	943(46.25)	164(48.09)	240(26.37)	172(33.33)	1,519(39.91)
무응답	267(13.09)	44(12.90)	53(5.82)	32(6.20)	396(10.40)
전 체	2,039(100.00)	341(100.00)	910(100.00)	516(100.00)	3,806(100.00)

자료: 일본국민금융공고, 「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 2002.

〈표 11〉 경영형태별·성별 순이익

(단위: 만엔)

	자영자		기업경영자		전 체
	창 업	가업 계승	창 업	가업 계승	
관찰치	782	124	591	304	1,801
평균	30.91	32.10	241.44	266.74	139.88
표준편차	29.50	37.81	424.32	412.12	316.46
최소값	1	2	3	2	1
최대값	300	300	6,775	4,000	6,775
10%	6	8	30	25	10
25%	10	12.5	60	50	20
50%	20	25	110	107.5	50
75%	40	40	300	290	120
90%	60	54	500	600	300

자료: 일본국민금융공고, 「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 2002.

2. 소득결정 분석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혹은 일본) 자료는 자영업자가 소득(순이익)에서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질문하고, 흑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소득이 발생하는 정도를 다시 질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순손실 규모를 알 수 없다.⁷⁾ 이는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에서 0 미만의 값은 모두 0의 값에 모여 있는 분포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분석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 면에서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프로빗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자가 흑자를 내는지를 추정하기로 하였다.⁸⁾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자가 높은 소득을 나타내는지를 OLS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자에게서 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빗 분석에서 먼저 종속변수, 곧 피설명변수는 순소득이 발생하는가이다. 곧 순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1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나 연령은 자영업자의 적자 여부에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 종사 기간 변수는 자영업 소득 발생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 기간의 제곱항이 양(+)의 유의적 계수를 보임에 따

7) 앞에서 밝힌 대로 한국의 KLIPS는 8차년도에 한하여 적자 규모를 적게 되어 있으나, 충분한 관찰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8) 이 경우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흑자나 적자를 분명하게 응답한 표본 3,410인 가운데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44.55%로 분포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말하자면 분포에서 0에 모여 있는 표본의 비중이 44.55%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빗 모형을 이용하더라도 사실상 약 45%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분석 결과가 불안정하게 된다. 실제로 토빗 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토빗 모형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자영업 종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 흑자 확률을 체증적으로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역, 제조업인 경우 등이 순소득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용주 여부나 이전 일자리의 직업 더미는 자영업 흑자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인적 자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교육연수, 연령, 자영업 종사 기간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지역, 고용주, 제조업 더미, 생산직 더미 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전 일자리의 직업 더미는 전문직/준전문직인 경우가 생산직인 경우보다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무직인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높지 않았다.

〈표 12〉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발생 여부 및 소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분석	회귀분석
상수	-1.3700(5.22)**	-0.618(-2.55)**
교육연수	-0.0071(0.56)	0.090(23.52)***
연령	0.0093(0.12)	0.049(4.65)***
연령 ² /100	-0.0025(0.01)	-0.055(-4.76)***
자영업 종사 기간	-0.051(27.61)***	0.013(3.45)***
자영업 종사 기간 ² /100	0.128(16.02)***	-0.026(-1.98)**
지역 더미	0.121(4.13)**	0.086(3.55)***
고용주 더미	-0.022(0.14)	0.452(19.78)***
제조업 더미	0.289(12.45)***	0.096(2.93)***
생산직 더미	-0.220(10.45)***	0.161(6.55)***
관리직 더미	0.007(0.00)	0.133(0.61)
전문직/준전문직 더미	-0.082(0.41)	0.089(1.88)*
사무직 더미	0.109(2.31)	-0.051(-1.75)*
Y_2002	-0.195(6.44)**	0.100(3.05)***
Y_2003	-0.169(4.94)**	0.067(2.05)**
Y_2004	-0.284(11.97)***	0.107(3.19)***
Y_2005	-0.675(44.28)***	0.151(4.44)***

주: 1) 프로빗분석의 () 안의 수치는 카이제곱이며, 회귀분석의 () 안 수치는 t값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분석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사용한 탓으로 한국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모형 설정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주어진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실히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연령(자승항을 포함)을 포함하고, 자영업 종사 이후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자영업 종사 기간(자승항 포함)을 포함하였으며, 능력 곧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교육연수(중졸 이하, 고졸(고진), 전수·각종 학교졸, 단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를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 직업(회사와 단체 상근임원, 관리직, 관리직 이외의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가족종사자, 학생, 전업주부, 기타)을 설명변수로서 포함함으로써 자영업 종사 이전에 축적된 인적자본이 자영업 종사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지역(정령(政令) 지정도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이외의 지역)과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일반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기업과 관공서 대상 서비스업, 기타)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는 자영자와 기업경영자에 대하여 각각 2,380명과 1,426명을 표본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추정결과의 t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본에 두 종류의 층(strata)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⁹⁾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영업 종사 기간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이나 자영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작용하여 자영업과 관련된 인적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축적된 인적자본이 일정한 수익률을 자영업자에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분석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연수의 경우, 중졸과 고졸 그리고 전수·각종학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분석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미치는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Amemiya(1985)를 참고할 것. 편의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석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STATA에서 층(strata)을 고려한 프로빗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13〉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발생여부 및 순이익 수준 결정요인 분석

	프로빗분석	회귀분석
상수	1.274(0.681)*	3.853(0.881)***
연령	-0.034(0.026)	-0.026(0.035)
연령 ² (×100)	0.019(0.025)	0.026(0.033)
자영업 종사 기간	0.015(0.009)*	0.053(0.012)***
자영업 종사 기간 ² (×100)	-0.006(0.021)	-0.085(0.029)**
중졸	-0.306(0.099)***	-0.456(0.134)***
고졸·고전졸	-0.235(0.080)***	-0.394(0.099)***
전수대졸	-0.380(0.131)***	-0.141(0.176)
단대졸	-0.029(0.215)	-0.596(0.255)**
대학원졸 이상	0.124(0.407)	0.044(0.424)
정령 지정도시	0.224(0.073)***	0.445(0.093)***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0.065(0.082)	-0.027(0.112)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0.596(0.157)***	0.490(0.201)**
관리직	0.302(0.120)**	0.021(0.172)
관리직 이외	0.172(0.110)	-0.069(0.160)
비정규근로	-0.027(0.235)	-0.601(0.330)*
가족종사자	0.284(0.189)	-0.060(0.268)
학생	0.350(0.262)	-0.059(0.318)
제조업	-0.290(0.173)*	0.703(0.212)***
도매업	-0.255(0.188)	0.243(0.235)
소매업	-0.391(0.168)**	0.006(0.206)
음식점업	-0.558(0.178)***	-0.055(0.228)
건설업	-0.253(0.175)	0.407(0.215)*
운수업	-0.196(0.193)	-0.035(0.243)
일반소비자대상 서비스업	-0.059(0.179)	0.084(0.216)
기업·관공서대상 서비스업	0.126(0.181)	0.215(0.212)
Log likelihood	-1,236.06	-
수정된 결정계수	-	0.1297

주: 1)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효과를 살펴보면,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거나 관리직이었던 자영업자가 양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령(政令) 지정도시에서 창업한 경우에 양의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으로는 소매점과 음식점업인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¹⁰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순이익의 결정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를 참고로 살펴보았다.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순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자영업 종사 기간과 학력 그리고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단대졸 출신이 낮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순이익이 높은 자영업자는 주로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출신들이다. 이전 직업이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사원이나 계약사원이었던 경우에도 순이익이 낮은 편임을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3. 소득 및 순이익 결정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자영업자의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영업자의 특성이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이질적인 집단(heterogeneous group)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OLS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이므로 이질적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소득(순이익) 분포의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¹⁰⁾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

<표 14>에 나타나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은 앞서 OLS 분석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분위별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교육연수의 효과는 소득분포의 상위 75%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25%인 경우 1년 교육연수의 계수가 0.085이나 소득분위 50%에서는 0.083으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소득분위 75%에서는 다시 0.086으로 상승한다. 한편, 제조업 더미는 분위가 올라갈수록 계수값이 커지고, 생산직 더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사무직은 상위 소득일수록 임금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 종사 기간이나 지역 더미, 고용주 더미, 이전 직장의 직업 더미 등에서는 유의미한 추세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10) 분위회귀분석에 대해서는 Kroenker and Bassett(1978)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표 14>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 전체 자영업자

	Q25	Q50	Q75
상수	-1.510(0.291)***	-0.282(0.270)	-0.038(0.308)
교육연수	0.085(0.006)***	0.083(0.004)***	0.086(0.005)***
연령	0.069(0.012)***	0.038(0.012)***	0.043(0.014)***
연령 ² /100	-0.077(0.014)***	-0.045(0.013)***	-0.048(0.015)***
자영업 종사 기간	0.013(0.005)***	0.015(0.004)	0.013(0.005)***
자영업 종사 기간 ² /100	-0.021(0.015)	-0.031(0.012)***	-0.031(0.016)*
지역 더미	0.069(0.028)**	0.084(0.027)***	0.046(0.031)
고용주 더미	0.474(0.026)***	0.436(0.024)***	0.446(0.030)***
제조업 더미	0.058(0.036)	0.078(0.030)***	0.096(0.036)***
생산직 더미	0.210(0.032)***	0.161(0.026)***	0.106(0.025)***
관리직 더미	0.433(0.239)*	0.133(0.205)	0.081(0.282)
전문직/준전문직 더미	0.129(0.073)*	0.095(0.044)**	0.141(0.056)**
사무직 더미	0.013(0.037)	-0.052(0.028)*	-0.101(0.035)***
Y_2002	0.150(0.039)***	0.072(0.033)**	0.113(0.043)***
Y_2003	0.157(0.037)***	0.099(0.032)***	0.071(0.040)*
Y_2004	0.164(0.049)***	0.121(0.034)***	0.142(0.042)***
Y_2005	0.206(0.045)***	0.197(0.030)***	0.194(0.039)***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일본의 경우에도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순이익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15>에 따르면, 먼저 자영업 종사 기간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분포의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에게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학력효과는 상위 분포에 속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학력의 계수 추정치가 상위 분포에 속할수록 음(-)의 절대치가 높아지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던 경우에도 상위 분포로 갈수록 계수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을수록, 특히 자영업 종사 이전에 축적된 인적자본이 자영업 종사 이후에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에 대한 위수회귀분석 결과

	Q25	Q50	Q75
상수	3.591(1.458)**	3.389(0.976)***	3.248(1.279)**
연령	-0.062(0.060)	-0.016(0.038)	0.017(0.052)
연령 ² (×100)	0.063(0.060)	0.011(0.037)	-0.017(0.050)
자영업 종사 기간	0.070(0.014)***	0.053(0.015)***	0.053(0.022)**
자영업 종사 기간 ² (×100)	-0.100(0.039)***	-0.074(0.038)*	-0.055(0.055)
중졸	-0.394(0.214)*	-0.487(0.159)***	-0.446(0.177)**
고졸·고전졸	-0.218(0.158)	-0.358(0.106)***	-0.436(0.140)***
전수대졸	-0.195(0.206)	-0.079(0.218)	-0.263(0.229)
단대졸	-0.598(0.280)**	-0.707(0.215)***	-0.929(0.434)**
대학원졸 이상	-0.820(0.860)	0.206(0.912)	0.536(0.720)
정령 지정도시	0.282(0.124)**	0.405(0.114)***	0.403(0.137)***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0.130(0.164)	-0.156(0.136)	-0.100(0.157)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0.592(0.263)**	0.490(0.222)**	0.878(0.287)***
관리직	0.082(0.221)	0.241(0.181)	0.233(0.264)
관리직 이외	-0.010(0.204)	0.059(0.163)	0.105(0.253)
비정규근로	-0.930(0.746)	-0.091(0.453)	-0.289(0.395)
가족종업원	0.043(0.399)	0.054(0.298)	0.089(0.379)
학생	0.112(0.386)	0.0003(0.421)	-0.460(0.700)
제조업	1.027(0.269)***	1.050(0.244)***	0.793(0.345)**
도매업	0.512(0.301)*	0.598(0.348)*	0.203(0.379)
소매업	0.175(0.287)	0.239(0.245)	0.108(0.321)
음식점업	0.326(0.284)	0.154(0.243)	-0.366(0.351)
건설업	0.399(0.327)	0.654(0.275)**	0.449(0.380)
운수업	0.145(0.332)	0.158(0.301)	0.162(0.384)
일반소비자대상 서비스업	0.126(0.285)	0.118(0.274)	0.264(0.347)
기업·관공서대상 서비스업	0.617(0.270)**	0.583(0.250)**	0.258(0.357)
유사결정계수	0.0695	0.1050	0.1318

주: 1)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 부문이 상이한 점에 주목하여 양국의 자영업 부문을 미시적 자료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대체로 한국

과 일본 양국의 경우,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각종 관련 통계로부터 재차 확인되는 사실이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경우에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른바 “to be my own boss”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는 낮은 보수를 감수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영하는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김기승·조준모, 2006).

이밖에 양국간의 공통점은 자영업 종사 기간이 미치는 효과이다. 먼저 자영업의 소득 발생 여부(혹자 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한 프로빗 결과에서는 교육수준보다는 한국의 경우 자영업 종사 기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인적자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교육연수, 연령, 자영업 종사 기간 등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에서도 비슷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자영업자가 양(+)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순이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자영업 종사 기간과 학력 그리고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육(학력)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일본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상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임금근로를 선택하며, 그렇지 못한 층이 부득이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고보다는 자영업 종사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뛰어난 이른바 기라성(superstar)이 있음을 추측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도 취업자 가운데 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상이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함
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이들의 소득(순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의 효과 등 공통되
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2002년 1개 연도의 횡단면
분석에서 얻은 결과라는 제약이 있음에 유의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한국
과 일본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이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
한 제약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비교 분석하는 1차
적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
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많은 통계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
집』 23권 특별호 (2000): 81~108.
- 김기승·조준모, 「자영업에 관한 유인가설과 구축가설에 대한 검증 : 월간
단기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12(2) (2006): 163~189.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
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55~80.
- 김우영·김응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
업연구』 23(3) (2001): 29~54.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
(1) (1999): 109~140.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
(1) (2000): 137~165.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
정책연구』 2(3) (2002): 101~136.

- Amemiya, Takeshi. *Advanced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Blanchflower, David G. "Self-Employment: More May Not Be Better," NBER Working Paper No.10286, Feb. 2004.
- Blanchflower, David G., and Oswald, Andrew J.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1) (January 1998): 26-60.
- Blau, David M., "A Time-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3) (June 1987): 445-467.
- Evans, David S., and Jovanovic, Boyan.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4) (August 1989): 808-827.
- Fairlie, Robert W.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1999): 80-108.
- Genda, Yuji and Ryo Kambayashi. "Declining Self-Employment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6 (1) (March 2002): 73-91.
- Hamilton, Barton H.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3) (June 2000): 604-631.
- Harada, Nobuyuki. "Who Succeeds As An Entrepreneur? An Analysis of the Post-Entry Performance of New Firms in Japa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5 (2) (April 2003): 211-222.
- Holtz-Eakin, Douglas, David, Joulfaian, and Harvey S. Rosen.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1) (February 1994): 53-75.
- Koenker, Roger, and Bassett, Gilbert.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46 (1) (January 1978): 33-50.
- Lombard, Karen V. "Female Self-Employment and Demand for Flexible, Nonstandard Work Schedules." *Economic Inquiry* 39 (2) (April 2001): 214-237.

Van, Praag C. M., and Cramer, J. S. “The Roots of Entrepreneurship and Labour Demand: Individual Ability and Low Risk Aversion.” *Economica* 68 (269) (February 2001): 45~62.

小木榮一. 「90年代の新規開業の特徴—この10年間で新規開業は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のか—」, 『國民生活金融公庫「新規開業實態調査」の再分析(1991年~2000年)』, 石田浩他,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001.

佐藤博樹. 「いま、なぜ自營業か?」, 『Works』 34, ワークス研究所, 1999, pp.8~9.

竹内英二. 「國民生活金融公庫の「新規開業實態調査」について」, 『國民生活金融公庫「新規開業實態調査」の再分析(1991年~2000年)』, 石田浩他,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001.

日本總務省 統計局. 「勞働力調査」, 해당 연도.

八幡成美. 「雇用户から自營業主への移行」, 『日本勞働研究雜誌』, 452號, Jan. 1998.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elf-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Seung-Yeol Yee & Kang-Shik Choi

This paper analyzes o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It reveals that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wage earners while the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Probit and OLS estimators show that tenure and previous occupation of the self-employed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e income (or positive profit) while human capit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 the magnitude of the income.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also demonstrate that high caliber individuals choose the self-employment sector,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only low quality workers are left in the self-employed sector.

Keywords : quantile regression, self-employed,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